

기업 氣 살려 지역경제 활력 찾는다

전주시, 올해 기업과 친밀감 높이고 유대 강화 중점 300개 기업 방문 계획

전주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성장을 돕고 일자리도 만드는 기업 기(氣) 살리기 현장방문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침체에 빠져 있는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업 기 살리기 현장방문을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업 기 살리기'는 전주를 사람 생태 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 228개였던 방문기업수를 올해는 300개까지 늘리고, 기업과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한 애로사항 해결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수렴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토록 노력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방문기업 유형을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으로 다양화해 기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해결해주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열악한 기업환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수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중소기업인 인증제 시행 우수기업 예우의 날 지원 우수근로자 시장유공 표창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대상 시 산하기관에서 공공기관 민간단체까지 확대해 지난해 124억에서 올해 150억으로 목표액을 상향해 각종 시설물 관급자재부터 소소한 소모품까지 지역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해 기업의 관료화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실·국장들로 '기업 기 살리기 대책 실무단'을 구성하고,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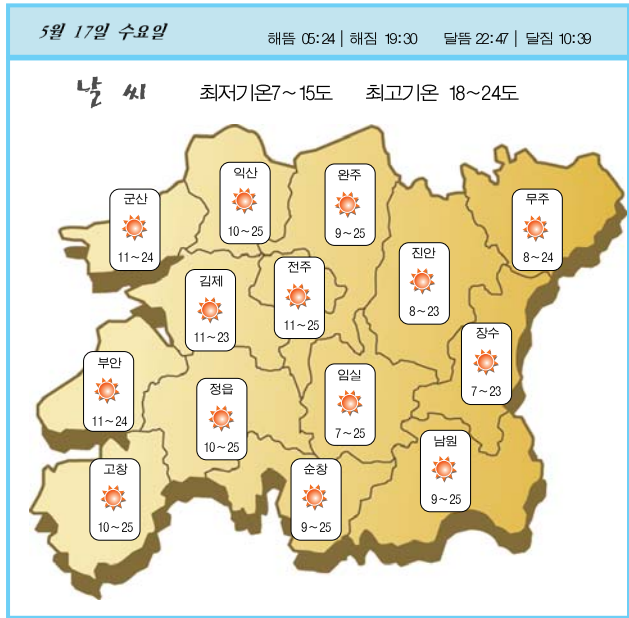
격주마다 시장 주재의 기업 살리기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지역기업 제품 구입 실적과 애로사항 추진결과를 함께 논의하고 점검해왔다. 그 결과, 228개 기업을 방문해 313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 중 301건을 완료해 98%의 높은 처리율을 달성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의

계약 금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공업지역 내 공장용적률 250%에서 300%로 완화 △공장 신·증축 시 조정면적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을 주던 불필요한 규제 3건을 조려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도 했다.

다수의 기업에서 건의한 해외수출 관료화해 지원 예산도 지난해 3000만 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10배 증액해 해외비어초청 수출 상담회 개인 및 단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등 기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기업 기 살리기는 단순히 기업의 사업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NSLI-Y 프로그램 홈스테이가정 공개 모집

도교육청은 미국 고교생에게 한국 문화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홈스테이 가정을 공개 모집한다.

NSLI-Y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에 의해 선발된 미국 고교생들이 주요 세계 언어를 현지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부터 전북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45일간 전주에 머무르며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학생들은 실제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해 전원 홈스테이를 할 계획이다.

함께 생활하며 미국 고교생들이 한국과 전주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국제적 유대 관계를 쌓고자 하는 홈스테이 가정을 공개 모집한다.

홈스테이 제공가정 모집은 예비 가정을 포함하여 18가정을 선발한다.

/정해은기자

선발된 홈스테이 가정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2회 분할 지급된다.

홈스테이 모집 요건은 교육장소인 전주제일고등학교까지 도보로 15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며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한국어 습득을 도울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관련 사전 교육 참여와 교육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가정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전라북도교육청의 NSLI-Y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의 현지 실사 팀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모집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홈스테이 희망 가정을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nsliy2017@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우수 공학자 양성 프로젝트 참여 학생 모집

전북대학교 '청소년창업기술인재센터-이공학 영재교육원'이 도내 청소년들을 우수 공학자로 육성하기 위해 '제6기 우수고교생 연구동아리 오디세우스 프로그램'을 마련,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교육청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도내 고교 1학년 학생 50명을 선발해 올 9월부터 1년동안 이공계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반도체와 ▲분자생물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고분자·나노공학 ▲컴퓨터, ▲항공우주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농생명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전북대 연구진과 멘토링을 맺고 실험실습, 소논문 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주요 연구 프로젝트 수행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통해 활동에 대한 성취감도 갖게 할 예정이다.

또 1년간의 연구 활동 종료 후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로써 참여 학생들의 미래비전 설계를 위한 비전트립(Vision Trip) 참여 기회를 부여해 해외 우수 대학 연구실 체험과 현지 대학 연구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교생은 청소년창업기술인재센터 홈페이지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기자

도교육청, 9월 17개 학교 교장 공모제 추진

도교육청이 9월 임용예정인 17개 초중학교 교장 공모제를 추진한다.

16일 도교육청은 총 52개 학교의 정년퇴임 교장중 1/3인 17개 학교에서 공모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대상은 초 10개교, 중등 7개교 등 총 17개교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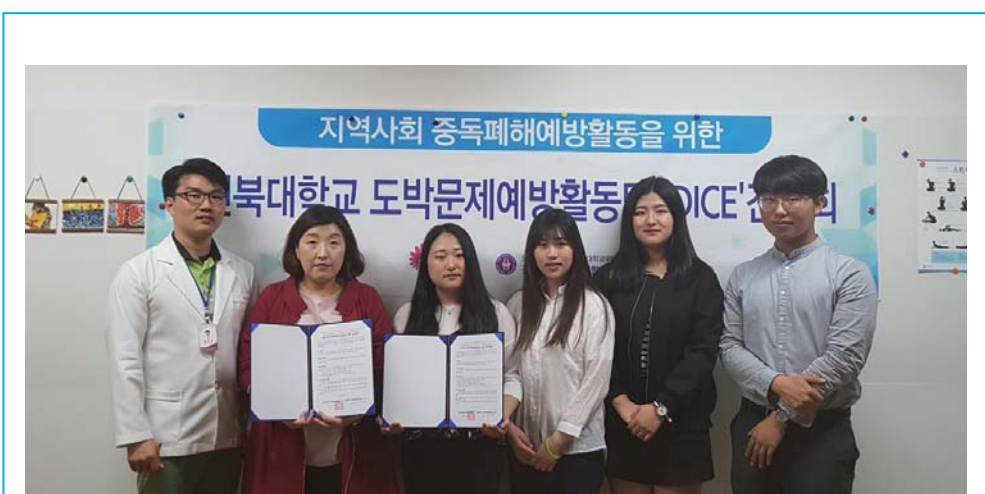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해당 학교 전체를 교장 공모제 지정 학교로 선정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 실시 여부를 결정해 도교육청으로 통보하도록 할 인내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또 신청학교 중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선정해 최종 교장 공모 학교를 이번 달 중순 결정할 예정이다.

공모 유형은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별되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내 남았거나 징계기록 미발소자, 교원 4대 비위자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교장 공모 학교가 선정되면 다음 달 초 지원자 접수를 받아 8월 중 교육감 임용 추천과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전북대 학술동아리 도박문제예방활동단 DICE ·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 폐해 예방활동 위해 협력기로

전북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술동아리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DICE가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중독 폐해 예방활동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DICE는 전북대 심리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도내 유일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주관사업 대학생 도박문제 예방활동단이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독문

제 이동 상담과 사례 발굴 등 예방사업에 협력하고 대학생 및 전주시민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양 기관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협력도 광범위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중독 예방이 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전북대 도박문제예방활동단 김서희 회장은 "그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데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행복한 교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